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관한 인식*

- Q 방법론적 접근 -

조 계 화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한국의 대학생들은 무한경쟁 속에서 성공을 목표로 전력투구하며,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정신적 가치 상실의 위기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 변화는 개인으로 하여금 허무와 절망감, 소외와 고독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양산하여 점차로 정서적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조계화, 2008).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병리 현상인 높은 자살률과 실업률은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 사회에 노출되어 있는 대학생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의문을 품게 된다. 대학은 학생들이 지식을 탐구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곳이며 이를 통해 개인적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행복을 느끼는 장소이다. 즉 대학은 교수와의 학습을 통한 삶의 과정으로서 행복은 학생들이 가져야 할 가치이며 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행복은 주관적 경험으로서 학습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단순한 지식의 획득이 아닌 깨달음을 통해서 발생하는 신념체계에 달려있다(남인숙, 2007). 따라서 21세기의 대학교육은 물량주의에 대응하는 인성교육이 어느 시대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학생들의 행복감은 지적능력, 경제적 수준, 혹은 외모와 같은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행복을 객관적 준거나 기준을 통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이는 행복의 주관적인 지각 및

인식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행복은 사람마다 다른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주관적 안녕감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김명소, 임지영, 2003). 삶의 질 또는 행복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어떤 삶의 영역이 중요한가는 개인, 문화 또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그러므로 개인의 행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측면보다는 주관성 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Argyle(2001)는 행복은 기쁨의 상태이거나 정적인 정서상태에 있고, 삶에서 만족감을 경험할 때라고 하여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감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는 두 가지 접근이 있어 왔다. 그 중 하나는 상향식 이론(bottom-up theory)으로 이 이론에 따르면 일상적인 경험이 누적되어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상기 이론은 행복을 설명하는데 있어 성별, 연령, 소득, 교육, 건강, 여가 등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하향식 이론(top-down theory)은 일상의 구체적인 사건들이 누적되어 심리적 행복감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 대한 태도나 성격이 기본적으로 경험들을 해석하는 준거로 사용되고 그로부터 행복감을 느낀다는 개인의 내면적인 요인을 중요시하는 이론이다(Costa & McCrae, 1980). 상기 이론은 행복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서 행복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고, 부정적 정서를 적게 경험하는

주요어 : 행복, 간호, 학생, 인식, 방법론

* 이 논문은 2011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교신저자 E-mail: jokw@cu.ac.kr)

투고일: 2011년 4월 4일 심사완료일: 2011년 7월 12일 게재확정일: 2011년 7월 14일

것으로 볼 수 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상향적, 하향적 요인들을 밝힘에 있어 학자들은 행복은 개인의 생활 속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향적 요인들은 단지 행복에 영향을 주는 객관적 지표들에 대한 추정된 결과를 제공할 뿐 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 개인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평가가 성별, 연령, 학력, 경제수준, 직업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들에 의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개인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들로 주목된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 학생들은 취업과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증상과 우울증에 시달릴 뿐 아니라 자살생각의 확률이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Jo, An, & Shon, 2011). 이러한 부정적 정서에 대처하는 훈련은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은 다를 지라도 행복은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된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계의 성찰은 희생을 강요하며 성공을 위한 교육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이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행복하기 위한 참된 삶의 조건 등에 대한 인성교육을 등한시 한 결과 현재 우리 사회는 인륜을 저버리고 인간생명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등의 각종 사회 비리를 통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전 학문 분야의 대학생들이 행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간호 대학생들에게는 보다 중요한 특이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긍정적 정서인 행복에 관한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로 하여금 대상자를 향한 개별적이며 총체적인 돌봄 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Flaming, 2001). 간호학에서 인본주의적·이타주의적 가치체계는 인간의 성숙한 삶을 이끌어주는 질적 자원에 대한 철학이며, 자아확장과 배움을 통해 얻어지는 행복감과 그러한 행위를 추구하는 헌신에 관한 것이다(Watson, 1985). 간호 대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진지하게 사유하고 행복에 대한 가치를 창조하는 인성적 자질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강진문인은 대상자의 의견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도록 도와 줄 수 있으며 공감적 관계로 연결 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간호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행복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생의 주기를 통하여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인간의 주관적인 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대상자가 인간주의적인 방식으로 발달해 나가도록 간호학생의 돌봄 실천능력과 민감성을 배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준비될 경우, 이들의 심리, 사회,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졸업 후 임상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봄 대상자를 접할 때 보다 폭넓

은 전문가적 소양을 갖추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 만성질환의 증가와 시한부 질환, 죽음, 사별등과 관련된 위기상황에서 상실과 삶의 끝을 편안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통해 인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필요한 풍부한 인간성과 사회과학적인 소양을 기르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행복의 개념(남인숙, 2007)과 행복의 영향 요인(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박영신, 김의철, 2009)을 파악한 연구들로서 대부분이 심리학과 교육학에서 이루어졌으며 간호학문에서는 행복의 의미를 밝힌 연구(조계화, 김영경, 2010)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관한 인식은 돌봄의 중요한 변인임으로 객관적 점수의 높고 낮음으로 행복에 대한 인식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행위란 사회적인 구조와 움직임 속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각각의 행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상이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을 광범위한 면과 집중적인 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행복에 대한 인식은 총체적인 차원에서 밝혀내야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변화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변화야말로 이후에 발생할 보다 광범위한 변화를 미리 확실하게 예고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 행위의 연구에서 하나의 행동이나 생각을 독립적으로 떼어내 분석하는 것을 거부하는 Q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복에 관한 인식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대상자의 개별적 가치와 우리사회에서 요청되는 정신적인 삶의 가치가 회복되는 사회적 기대를 통합하는 돌봄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Q 방법론을 적용하여 행복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인식 유형과 그 유형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행복에 관한 대학생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행복에 관한 대학생의 주관적인 태도를 유형화한다.
- 행복에 관한 대학생의 주관적인 태도유형의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행복에 관한 간호대학생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

해 Q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표집 방법

● Q모집단 및 Q표본의 구성

Q모집단(Q-Population)은 일지역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행복에 관한 인식 구성에 대한 진술문을 추출하기 위하여 관련문헌 고찰과 개방형 질문지 그리고 개별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수행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은 일 지역의 간호대 학생 41명을 편의 추출하여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되었으며 행복에 관한 질문 항목은 자아의 구성요소에 대한 James(1890)의 분류에 기초하여, 상위 범주로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행복했을 때 느낌은 어떠하였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실제로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까요?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6문항이 포함되었다.

수집된 개방형 질문지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개방형 질문지에 덧붙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개별면담을 수행하였다. 개별면담은 일 지역의 간호대 학생 6명을 편의 추출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후 수행되었다. 면담 내용은 위에 언급된 질문을 포함하여 행복과 관련된 여러 요인으로 개인 내적 요인, 대인 관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리고 학습활동과 지지요인 등이었다. 이 외에도 행복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전문서적, 국내외 전문잡지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합하여 총 149개의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Q표본의 선정에 위하여 준비된 Q모집단을 놓고 행복에 대한 태도가 범주화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분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간호학과 교수1인과 사회복지학과 교수1인, 그리고 Q방법론 전문가 1인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34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 P표본(P-Sample)의 표집방법

Q방법론은 양적 연구와는 달리 사람이 변인이 되므로 P표본이 커지면 한 인자에 여러 사람이 편중되어 그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소 표본이론에 근거하여(김홍규, 1992) 임의추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 지역 간호학과 학생 41명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Q표본의 진술문이 34개이므로 이와 비슷한 표본의 경우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김홍규, 1992)을 고려하였다.

● Q표본 분류(Q-sorting) 및 자료 분석 방법

Q표본의 분포도는 연구대상자들이 Q표본으로 선정된 34개의 진술문들을 자신의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9점 척도 상에 분류하여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강제 분포시키는 Q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준비하였다. Q표본 분류는 Q표본을 먼저 읽은 후 긍정(+), 중립(0), 부정(-)의 세 부분으로 나눈 다음 긍정(부정)진술문 중에서 가장 긍정(부정)하는 것을 차례로 골라 바깥에서부터(+4, -4)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케 하여 중립부분(0)에서 마무리하게 하였다. 이때 양끝에 놓인 2개씩의 진술문 4개에 대한 선택 이유를 면담을 통해 받아두었다<Table 1>.

Q분류과정 전에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 기록하게 하였고 한 사람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는 25-35분이 소요되었다. 코딩은 가장 반대하는 경우를 1점으로 시작하여 중립인 경우 5점, 가장 찬성하는 경우에 9점을 부여하여 점수화하였다.

자료 분석은 PC-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34개의 항목별 평균, 표준편차, 표준점수를 구하였다. 그 후 다시 34개의 항목을 P-표본을 축으로 하는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방법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하였다. 유형은 Eigen value 1.0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수를 다양하게 입력하여 산출된 결과 중 최선이라고 판단된 것을 선택하였다.

<Table 1> Distribution of Q-sample card

	(Disagree)			(Neutral)			(Agree)		
Score	-4	-3	-2	-1	0	+1	+2	+3	+4
No. of card	2	3	4	5	6	5	4	3	2

연구 결과

Q유형의 형성

QUAN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행복에 대한 주관성을 Q요인 분석한 결과 4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요인은 전체변량의 57.6%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전체 변량이 작은 것은 대상자 의견의 다양성 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Q연구에서는 주 요인 견해만을 다루는 것을 연구자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변량의 크기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각 유형별 변량은 제 1유형이 39.5%, 2유형이 7.9%, 3유형이 6.0%, 4유형이 4.2%였다. 제 1유형이 39.5%의 설명력을 가지므로 행복에 관한 대상자의 인식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Table 2, Table 3>.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각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아 각 유형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었으며 진술문 표본 및 유형별 표준점수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2> Eigen values, variance, and cumulative percentage

	Type 1	Type 2	Type 3	Type 4
Eigenvalues	16.1736	3.2386	2.4765	1.7146
Variance(%)	.3945	.0790	.0604	.0418
Cumulative	.3945	.4735	.5339	.5757

유형별 특성과 해석

연구대상자의 구성은 제 1유형이 9명, 2유형 16명, 3유형

10명, 그리고 4유형 6명의 총 4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유형 내에서 인자가중치(factor weight)가 가장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의 전형적(prototype) 혹은 이상적(ideal)인 사람으로 그 유형을 대표함을 의미한다<Table 3>.

행복의 인식에 관한 주관성을 유형별로 분석, 기술하기 위해 우선 각 대상자들이 긍정적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고, 또한 개별 진술항목에 대한 특정 유형의 표준점수와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 설명하였다.

<Table 3> Types, weigh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p-samples

Type	Subject's No.	Factor weight score	Sex	Living with parents	Satisfaction of pocket money	Religion	Academic points	Peer relationship	State of employment	Personality
Type 1 (n=9)	VAR34	1.0417	Female	Yes	Satisfied	Have	3.6	Good	Yes	Middle
	VAR33	1.0166	Female	Yes	Unsatisfied	Have	3.9	Good	Yes	Extrovert
	VAR10	0.8151	Female	Yes	Satisfied	Have no	4.0	So-so	Yes	Middle
	VAR24	0.7634	Female	Yes	Satisfied	Have	3.4	Good	No	Middle
	VAR09	0.6523	Female	No	Satisfied	Have	3.9	Good	Yes	Middle
	VAR05	0.4715	Female	Yes	Satisfied	Have	3.8	So-so	Yes	Introvert
	VAR36	0.4079	Female	Yes	Satisfied	Have no	3.8	Good	Yes	Middle
	VAR13	0.3442	Female	Yes	Satisfied	Have	3.4	Good	No	Extrovert
	VAR21	0.3355	Female	Yes	Satisfied	Have	3.5	Good	No	Middle
Type 2 (n=16)	VAR16	1.5445	Female	Yes	Satisfied	Have	4.0	Good	Yes	Middle
	VAR22	1.0390	Female	Yes	Unsatisfied	Have	4.1	Good	Yes	Extrovert
	VAR02	0.7602	Female	No	Satisfied	Have	3.3	Good	No	Middle
	VAR35	0.7453	Female	Yes	Satisfied	Have no	4.0	So-so	Yes	Middle
	VAR37	0.7421	Female	No	Satisfied	Have	3.3	Good	No	Extrovert
	VAR26	0.5666	Female	Yes	Unsatisfied	Have	3.7	Good	Yes	Middle
	VAR07	0.5392	Male	Yes	Satisfied	Have no	3.6	Good	Yes	Middle
	VAR25	0.3902	Female	Yes	Satisfied	Have	3.9	Good	Yes	Middle
	VAR18	0.3811	Female	Yes	Satisfied	Have	4.2	So-so	Yes	Extrovert
	VAR32	0.3485	Female	No	Unsatisfied	Have	3.5	Good	Yes	Middle
	VAR12	0.3444	Female	No	Unsatisfied	Have no	4.0	Good	Yes	Middle
	VAR27	0.3190	Female	Yes	Satisfied	Have	3.2	Good	No	Middle
	VAR14	0.2988	Female	Yes	Satisfied	Have	3.9	So-so	Yes	Inytovert
	VAR06	0.2697	Female	Yes	Satisfied	Have	4.1	Good	Yes	Middle
	VAR01	0.2517	Female	No	Satisfied	Have	3.7	Good	No	Extrovert
	VAR20	0.1854	Female	Yes	Satisfied	Have	3.9	Good	Yes	Introvert
Type 3 (n=10)	VAR19	1.0397	Female	Yes	Satisfied	Have	3.7	Good	Yes	Extrovert
	VAR08	0.9747	Female	No	Satisfied	Have	3.6	Good	Yes	Extrovert
	VAR04	0.6263	Female	Yes	Unsatisfied	Have no	3.4	Good	Yes	Introvert
	VAR11	0.5866	Female	No	Unsatisfied	Have	3.9	So-so	Yes	Extrovert
	VAR29	0.3356	Female	Yes	Satisfied	Hav noe	3.8	Good	Yes	Extrovert
	VAR30	0.3115	Female	Yes	Unsatisfied	Have no	3.8	Good	Yes	Introvert
	VAR38	0.2919	Female	Yes	Satisfied	Have	3.8	Good	Yes	Introvert
	VAR28	0.2289	Female	No	Satisfied	Have	4.2	So-so	Yes	Middle
	VAR40	0.1819	Female	No	Unsatisfied	Have	3.9	Good	Yes	Extrovert
VAR17	0.1064	Female	Yes	Unsatisfied	Have	4.0	Good	Yes	Extrovert	
Type 4 (n=6)	VAR39	0.5139	Female	Yes	Satisfied	Have	3.4	Good	Yes	Extrovert
	VAR23	0.4074	Female	No	Satisfied	Have	3.7	Good	No	Extrovert
	VAR03	0.2802	Female	Yes	Unsatisfied	Have	3.7	Good	Yes	Middle
	VAR15	0.2788	Female	No	Satisfied	Have	3.8	So-so	Yes	Extrovert
	VAR41	0.2342	Female	Yes	Unsatisfied	Have	4.0	Good	Yes	Extrovert
	VAR31	0.2293	Female	Yes	Satisfied	Have	3.6	Good	No	Extrovert

<Table 4> Q-Samples and Z-Scores according to types

Q-Statement	Z-Score			
	Type 1 (N=9)	Type 2 (N=16)	Type3 (N=10)	Type4 (N=6)
1. I am happy for having parents and brothers.	2.0	2.2	1.6	1.4
2. I am happy for hearing the word of loving you from family.	1.8	1.5	-9	-8
3. I am happy for loving my natural being as itself.	-8	.9	-1.1	1.1
4. I am happy for being satisfied myself without comparison with others.	-1.3	.8	-1.2	.8
5. I am happy for having fine sense of being.	-2.0	-2.1	-9	-1.7
6. I am happy for having gratitude of mind.	-2	.9	1.0	1.5
7. I am happy for having many valuable memories.	.2	-2	1.8	.1
8. I am happy for making smiling face.	.3	1.2	1.3	1.4
9. I am happy for being in love with opposite sex.	-8	-5	-1.0	-2
10. I am happy for looking at the world beautifully with positive thinking.	-5	.9	-2	1.4
11. I am happy for overcoming difficulties easily.	-4	.2	.0	.1
12. I am happy for being praised.	.9	.2	.3	.2
13. I am happy for having clear path in life.	.4	-9	.4	-1.0
14. I am happy for having self-confidence in nursing science.	-5	-1.1	-3	-1.4
15. I am happy for having plans in the future.	.4	-3	.2	.3
16. I am happy for making life without restraint.	-9	-2	-1.2	.3
17. I am happy for having friends.	.9	1.3	1.6	.4
18. I am happy for having people understands me.	1.4	.7	1.6	.5
19. I am happy for having someone to tell my agony.	1.2	.4	1.2	.1
20. I am happy for having a good sociable character.	-7	-6	-5	.8
21. I am happy for having warm heart considering for others.	-2	.3	.3	.5
22. I am happy for having my room and a pet.	-1.1	-2.1	-1.4	-2.2
23. I am happy for living without economical distress.	1.1	.1	-1.3	-1.7
24. I am happy for being supported by my parents.	1.7	.9	-5	-0
25. I am happy for watching movies and TV programs.	-1	-9	-1	-9
26. I am happy for enjoying life and taking a good rest.	.3	.0	.5	.4
27. I am happy for being not ill as much as no activity.	.9	.9	.8	.8
28. I am happy for the fact being lived.	.1	.8	-0	.7
29. I am happy for waking up from sleep and resting from fatigue.	.1	-7	-5	-8
30. I am happy for having energy starting new work.	-4	-5	.8	.1
31. I am happy for having profession soon exhibiting my ability.	.1	-1.1	.9	-7
32. I am happy for being confidence in my appearance.	-7	-1.1	-1.4	-1.3
33. I am happy for not consideration with appearance.	-1.7	-9	-1.7	-1.4
34. I am happy for having religion to depend upon facing hard time.	-1.7	-9	-2	1.1

또한 각 유형의 특성을 해석할 때 Q 분류과정 당시 관찰 및 면담한 내용에 양극단의 의견과 인구사회학적 배경 등을 참조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분석 방법에 의해 산출된 대상자의 행복의 인식에 관한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 1유형 : 가족지지-감성형

제 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유형1은 총 41명 중 9명으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현재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용돈 수준에도 만족하였다. 학교성적은 평균평점 3.70으로 그룹 중 가장 낮았고 친구관계는 그룹 중 22%가 그저 그렇다고 표현하였다. 현재 과반수 이상이 취업이 된 상태이며 성격은 대부분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유형 1이 강하게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은 ‘나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가족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하다.’, ‘나는 부모님이 경제적, 정서적, 지지를 해주셔서 행복하다.’, ‘나는 진로가 뚜렷해서 행복하다.’였다. 반면 제 1유형이 가장 비 동의를 보인 항목은 ‘나는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종교가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에 만족하기에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하다.’ 등으로 나타났다<Table 5>.

제 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나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하다(Z값=2.05)’, ‘나는 부모님이 경제적, 정서적, 지지를 해주셔서 행복하다.(Z값=1.80)’, ‘나는 가족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하다.(Z값=1.57)’이었고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비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나

<Table 5> Descending array of z-scores (Greater Than ± 1) and item descriptions for each type (N=41)

Type	Item No.	Q-Statement	Z-Score
I (n=9)	23	I am happy for living without economical distress.	1.99
	2	I am happy for hearing the word of loving you from family.	1.75
	24	I am happy for being supported by my parents.	1.68
	13	I am happy for having clear path in life.	1.39
	29	I am happy for waking up from sleep and resting from fatigue.	1.19
	22	I am happy for having my room and a pet.	1.09
	12	I am happy for being praised.	1.05
	20	I am happy for having a good sociable character.	-1.02
	8	I am happy for making smiling face.	-1.13
	10	I am happy for looking at the world beautifully with positive thinking.	-1.30
	6	I am happy for having gratitude of mind.	-1.66
	4	I am happy for being satisfied myself without comparison with others.	-1.68
	34	I am happy for having religion to depend upon facing hard time.	-1.97
	II (n=16)	4	I am happy for being satisfied myself without comparison with others.
33		I am happy for not consideration with appearance.	1.49
28		I am happy for the fact being lived.	1.28
1		I am happy for having parents and brothers.	1.24
11		I am happy for overcoming difficulties easily.	1.21
25		I am happy for watching movies and TV programs.	1.19
15		I am happy for making life without restraint.	-1.03
5		I am happy for having fine sense of being.	-1.12
30		I am happy for having energy starting new work.	-1.14
7		I am happy for having many valuable memories.	-2.11
III (n=10)	31	I am happy for having profession soon exhibiting my ability.	-2.13
	7	I am happy for having many valuable memories.	1.85
	31	I am happy for having profession soon exhibiting my ability.	1.64
	30	I am happy for having energy starting new work.	1.56
	5	I am happy for having fine sense of being.	1.55
	17	I am happy for having friends.	1.32
	18	I am happy for having people understands me.	1.22
	14	I am happy for having self-confidence in nursing science.	-1.25
	16	I am happy for making life without restraint.	-1.27
	24	I am happy for being supported by my parents.	-1.35
IV (n=6)	3	I am happy for loving my natural being as itself.	-1.41
	2	I am happy for hearing the word of loving you from family.	-1.72
	34	I am happy for having religion to depend upon facing hard time.	1.49
	3	I am happy for loving my natural being as itself.	1.43
	20	I am happy for having a good sociable character.	1.42
	10	I am happy for looking at the world beautifully with positive thinking.	1.37
	16	I am happy for making life without restraint.	1.11
	14	I am happy for having self-confidence in nursing science.	1.08
	19	I am happy for having someone to tell my agony.	-1.31
	17	I am happy for having friends.	-1.37
	13	I am happy for having clear path in life.	-1.71
	23	I am happy for living without economical distress.	-2.24

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에 만족하기에 행복하다.(Z값 차이=-1.65)', '나는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종교가 있어서 행복하다.(Z값 차이=-1.42)', '나는 외모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행복하다.(Z값 차이=-1.33)' 순이었다.

유형 1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연구대상자 34번이 가장 동의할 만한 항목을 보면 '나는 부모와 형제가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부모님이 경제적, 정서적, 지지를 해주셔서 행

복하다.'라는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비 동의한 항목은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에 만족하기에 행복하다.', '나는 외모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행복하다.'였다. 연구대상자 34번은 부모와 함께 살고, 용돈에 만족하며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4번 대상자는 가족과 나의 삶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끼며,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는 것도 큰 행

복이라고 하였다. 외모에 자신이 없는 편은 아니나 남과 비교를 잘 해 자주 불행해지는 것 같다고 호소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 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가족의 연대감과 지지를 통해, 특히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정서적 의존은 학생으로서 행복감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드러내었다. 이 그룹은 가족의 소중함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 동시에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불행해지는 느낌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여 ‘가족지지-감성형’으로 명명하였다.

● 제 2유형 : 자기만족-인식형

유형2에 속한 대상자는 총 41명 중 16명으로 현재 부모와 함께 있지 않고 자취나 친척집에서 거주하는 학생의 수가 5명으로 그룹 중 가장 많았다. 과반수 이상이 용돈 수준에 만족하였으며, 학교성적은 그룹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친구관계는 대부분 좋다고 하였으며 현재 과반수 이상이 취업이 된 상태이며 성격은 대부분이 내향과 외향의 중간이라고 응답하였다.

유형 2가 강하게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은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에 만족하기에 행복하다.’, ‘나는 외모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행복하다.’, ‘나는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다.’, ‘나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는 편이라 행복하다.’ 등이었다. 반면 제 2유형이 가장 비 동의를 보인 항목은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것이기에 행복하다.’, ‘나는 소중한 추억이 많아서 행복하다.’,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다.<Table 5>.

제 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하므로 행복하다.(Z값=1.41)’, ‘나는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다.(Z값 차이=1.32)’, ‘나는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Z값 차이=1.30)’, ‘나는 부모와 형제가 있어서 행복하다.(Z값 차이=1.22)’이었고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비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나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다.(Z값 차이=-1.23)’, ‘나는 내 방과 애완동물이 있어서 행복하다.(Z값 차이=-1.18)로 나타났다.

유형 2에서 인자가중치가 제일 높은 연구대상자 16번이 가장 동의한 항목을 보면 ‘나는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에 만족하기에 행복하다.’의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비 동의한 항목은 ‘나는 내 방과 애완동물이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다.’였다. 연구대상자 16번은 나는 존재의 근본이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한편 예민하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고 동글동글하게 살기

힘들 것 같다고 하면서 애완동물과 내 방이 있는 것은 자신의 행복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 2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현재 살아 있다는 사실과 있는 그대로의 자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생존의 우선적 요건인 자아와 삶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소유와 비교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견해를 보이고 있어 ‘자기만족-인식형’으로 명명하였다.

● 제 3유형 : 관계지향-행동형

유형3에 속한 대상자는 총 41명 중 10명으로 과반수 이상이 현재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용돈 수준에는 만족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성적은 평균평점 3.81로 그룹 중 가장 높았고 친구관계는 대부분이 좋은편이라고 답하였다. 현재 전원이 취업이 된 상태이며 성격은 대부분 외향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유형 3이 강하게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은 ‘나는 소중한 추억이 많아서 행복하다.’,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것이기에 행복하다.’,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다.’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제 3유형이 가장 비 동의를 보인 항목은 ‘나는 가족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하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하므로 행복하다.’, ‘나는 부모님이 경제적, 정서적, 지지를 해주어서 행복하다.<Table 5>.

제 3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나는 소중한 추억이 많아서 행복하다.(Z값 차이=1.81)’, ‘나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하다.(Z값 차이=1.52)’,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다.(Z값 차이=1.45)’,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것이기에 행복하다.(Z값 차이=1.23)’ 등이었고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비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나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하다.(Z값 차이=-1.72)’, ‘나는 어떤 것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 행복하다.(Z값 차이=-1.50)’,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에 만족하기에 행복하다.(Z값 차이=-1.37)’,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하므로 행복하다.(Z값 차이=-1.01)’ 순이었다.

유형 3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연구대상자 7번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을 보면 ‘나는 소중한 추억이 많아서 행복하다.’, ‘나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하다.’의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비 동의한 항목은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하므로 행복하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에 만족하기에 행복하다.’였다. 7번 대상자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 지금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면서 23년을 살아오면서 맺은 인간관계와 많은 추억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행복해 진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힘든 상황이 오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좋았던 시간을 생각하며 기운을 낼 수 있어 소중한 추억이 행복의 1순위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 3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해도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며 미래의 계획이 있기에 행복해 하는 그룹으로 나타났다. 이 그룹원의 행복 인식은 개인성장을 위해 미래 지향적인 반면 과거의 관계적 삶을 토대로 에너지를 얻는 것으로 생각되어 ‘관계지향-행동형’으로 명명하였다.

● 제 4유형 : 자기조절-신념형

유형4에 속한 대상자는 총 41명 중 6명으로 가장 작은 수의 그룹에 속한다. 유형4는 과반수이상인 현재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용돈 수준에도 만족하였다. 학교성적은 평균 평점 3.72로 나타났고 친구관계는 대부분이 좋다고 표현하였다. 현재 과반수이상인 취업이 된 상태이며 전원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성격은 보통으로 응답한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외향적이라고 답하였다.

유형 4가 강하게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은 ‘나는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종교가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하므로 행복하다.’, ‘나는 사교성이 좋은 내 성격 덕분에 행복하다.’, ‘나는 긍정적인 사고로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 등이었다. 반면 제 4유형이 가장 비 동의를 보인 항목은 ‘나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진로가 뚜렷해서 행복하다.’, ‘나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고민을 털어 놓을 곳이 있어서 행복하다.’ 등으로 나타났다<Table 5>.

제 4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하다.(Z값=2.01)’, ‘나는 긍정적인 사고로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Z값=1.42)’,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하므로 행복하다.(Z값=1.40)’, ‘나는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종교가 있어서 행복하다.(Z값=1.35)’, ‘나는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Z값=1.09)’ 등이었고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비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나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하다.(Z값 차이=-1.66)’, ‘나는 전공학문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행복하다.(Z값 차이=-1.51)’, ‘나는 진로가 뚜렷해서 행복하다.(Z값 차이=-1.32)’, ‘나는 외모에 자신이 있어 행복하다.(Z값=-1.07)’, ‘나는 외모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행복하다.(Z값=-1.03)’ 순이었다.

유형 4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연구대상자 39명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종교가 있어서 행복하다.’의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비 동의한 항목은 ‘나는 외모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행복하다.’, ‘나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하다.’였다. 39번 대상자는 행복 그자체가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였다.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행복할 줄 모르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며 행복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 4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행복은 주어진 삶을 수용하는 의지적 노력과 감사의 자세, 종교적 신념을 통해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이 행복의 큰 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유형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그룹원의 태도는 아직 학생으로서 경제적 여건에 대한 제한점과 외모에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나 긍정적 마인드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어 ‘자기조절-신념형’으로 명명하였다.

논 의

행복에 관한 간호대학생의 인식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된 본 연구결과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유형은 가족지지-감성형, 자기만족-인식형, 관계지향-행동형, 자기조절-신념형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 1유형은 간호대학생의 행복태도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타입이다. 이들은 가족지지-감성형으로 부모, 형제로부터 사랑받는다라는 말을 듣고 경제적, 정서적 지지를 받는데 행복의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1유형의 대상자들이 진술한 가족으로부터 받는 충분한 사랑, 함께 웃을 수 있고, 어려울 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존재, 나의 버팀목, 등은 가족이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유형이 진정한 행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사랑과 유대,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문화가 집단지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서양 문화와는 달리 관계적 영역에서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큰 가치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가족을 중심으로 강한 연대감을 형성하고 소속감과 자아정체감을 고양시킨다는 점은 이미 선행 연구들(조계화, 김영경, 2010; 전경숙, 정태연, 2009)에서 지적된 바 있다. 유형1의 대상자들이 여학생들로 구성된 점으로 보아 화목한 가정과 가족 지지를 행복의 우선순위로 두는 데는 한국인의 전통적 여성상과 혈연 중심적 가치를 지

적한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한편 유형1이 다른 유형에 비해 차이를 보인 항목은 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행을 느낀다는 점과 외모에 대한 관심을 보인 점은 집합주의 문화가 우세한 한국의 사회규범이나 자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개인의 가치와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장성숙, 2004)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문화에서는 사회규범의 영향과 아울러 자신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높아서 사회비교에 따라서 자기 가치도 달라진다고 보는 경향이 높다. 황재원과 김계현(2009)의 연구에서도 개인차로 전반적 사회비교의 경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주관적 안녕 인지 및 정서가 낮았다고 보고한 바 있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성향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자아 존중, 즉 행복감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 대학생들 가운데 2/3가량이 자신보다 우수한 사람과 사회비교를 선호하였는데(장은영, 2009), 이는 상향비교를 통해서 자기평가의 동기를 충족시켜 자기 가치를 더 느낀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비교 경험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진솔한 바와 같이 부정적 가치를 경험하게 되어 자존감에 손상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상에서 유형1의 행복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한국의 가족문화와 사회비교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특징적인 행복 인식에 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행복에 관한 가치관과 성취의식, 그리고 한국인의 가족 정서를 문화적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제 2유형은 자기만족-인식형으로 이 그룹에 속한 대상자들은 ‘남과의 비교와 외모에 큰 비중을 두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는 긍정적 효과로 개인적 안녕감을 체험하고 자족하는 그룹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젊은 대학생들에게는 타인에게 보이는 신체적 이미지에 민감하여 외모가 자아개념과 행복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며(조계화, 김영경, 2010), 취업과 관련하여 외모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 미용성형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란, 2004). 그러나 유형2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단서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며 현재 자신이 살아있다는 본질적인 사실 즉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 자체에 의미를 두는 그룹으로 여겨진다. 이는 Alick와 Largo(1995)가 제안한 개인이 추구하는 바가 내적이고 추상적일수록 긍정적 태도를 취할 경향이 크다고 한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박정현과 서은국(2005)의 연구에서도 내적 자아를 추구하는 조건이 많을수록 낙관적이며 자신감 있고 평안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결과는 본 연구의 유형2의 행복인식을 지지하고 있다.

유형2가 다른 유형에 비해 차이를 보인 항목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웃을 수 있는 여유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행복 조건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

과 내적 평온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신이 소유한 내·외적 조건들은 행복의 중요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과거의 삶에 대한 수용과 감사, 현재에는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며,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통해 스스로 만족감을 고양시키는 그룹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Seligman(2002)은 삶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자신에 대한 만족감은 즐거운 삶과 연관되며 행복감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삶의 환경이나 조건의 차이는 행복의 수준을 단 10%밖에 좌우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즉 부(富), 건강, 외모, 지위 등의 여건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2유형의 행복 인식을 지지하고 있다. Campbell(1976)도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 높아진다고 하여 반드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방하여 객관적 지표는 인간이 지각하는 행복의 본질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상에서 유형2의 행복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남과의 비교와 외적 기준에 중점을 두지 않는 건강한 자아개념, 웃을 수 있는 여유와 유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특징적인 행복 인식에 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자아인식이 외부적 기준에 의해 정의되는 행복기준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제 3유형은 관계지향-행동형으로 이 그룹에 속한 대상자들은 소중한 추억과 능력, 직업,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 예민한 감각의 소유 등을 행복의 조건으로 인식하는 그룹으로, 행복감이 인간관계와 직업 같은 외부적인 기준에 의해 정의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영례(2006)의 연구에서도 능력이나 힘, 예술적 감각 등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빠져드는 몰입 경험을 통해 유능감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여 유형3의 행복 인식과 유사한 견해를 보인다. 유형3의 대상자들은 간호학생으로서 앞으로 자신이 수행 할 전문적이 있고, 그 일을 할 에너지가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 어떤 일과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자기 목적적 경험을 가지고 그에 몰입하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한성열(1995)은 개인이 달성하고자 노력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로 그에 대한 몰입이 발생하고, 과제가 도전적일 때, 개인이 능력을 확장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끔 하는 에너지를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유형3의 행복 인식을 지지하고 있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난 후의 행복감은 단순한 즐거움의 정서와는 차이가 있으며(정범모, 1997), 인간의 성장욕구는 개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그 잠재능력을 활용하고 새로운 재능을 개발하는 데 있다(Alderfer, 1972). 따

라서 유형3은 자신의 능력과 일을 통해 개인적 성장을 추구할수록 행복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20대 젊은층의 행복 인식에는 삶의 목적과 개인적 성장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김명소, 임지영, 2003)와 일치한다.

유형3이 다른 유형에 비해 차이를 보인 항목으로는 소중한 추억과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그리고 능력과 직업을 가지는 것 등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행복 조건은 대학생의 삶에서 동료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대인관계는 서로의 생활에 주관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상대방에게 예민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형성된다. 특히 본연구의 대상자는 대학 4학년생으로서 사회진출을 앞두고 직업적 가치관과 주체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유형3의 대상자들은 미래의 목표인 간호전문직 수행과 관련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배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유형3은 전공학문을 통해 펼쳐질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표출하고 있으며, 인간관계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그룹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행복 인식을 통해 대학 시기는 타인, 특히 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발달과제를 안고 있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제 4유형은 자기조절-신념형으로 이 그룹에 속한 대상자들은 종교적 신념과 긍정적 자아개념을 소지한 그룹으로 개인적 신념이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긍정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자아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체험하게 된 신앙적 경험들은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게 하고 현실을 극복하게 하며, 미래를 전망하게 한다는 문헌(김재휘, 2004)은 본 연구에서 드러난 유형4의 행복 인식을 지지하고 있다. 유형4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행복이 경제, 진로, 친구, 외모 등의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발전시키는 자기 통제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자기 긍정의 낙관성은 학습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Seligman, 2002), 자신의 행복은 자신의 사고와 신념에 따라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유형4의 태도와 유사하다.

유형4의 행복인식은 낙관성, 통제감, 의미부여 등 내적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자기 기준의 독립적 특성을 지닌 그룹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 신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민감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타인의 판단에 의지하게 된다는 결과(Seligman, 2002)는 기존의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회적 기준에 저항하는 내적 통제와 자기 신념이 행복 인식의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유형4가 다른 유형에 비해 차이를 보인 항목으로는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사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웃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태도는 자신이 삶의 적극적인 주체임을 확신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행복의 개인 내적요소는 긍정적 자아, 일상의 사소한 즐거움, 자율성과 자유이며 (Chiasson, Dube, & Blondin, 1996), 행복의 의미는 일상의 사소한 것, 주위에 늘 가까이 있는 것으로서 마음속에 내재한 가치관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밝힌 연구(조계화 & 김영경, 2010)와 유사하다. 또한 유형4의 행복 인식은 실제 상황에서 개인이 어떤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법에 있어 신념 체계의 긍정적 영향력을 설명한 연구(Peterson, Park, & Seligman, 2005)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상에서 유형4의 행복 인식은 개인의 긍정적인 신념체계 혹은 성격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객관적 의미에서 행복할 수 있는 요소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행복 인식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감을 고양시키는 그룹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관한 인식 유형을 밝힘으로써 간호교육과정 안에 행복 개념의 도입과 인문학적 융합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해 준 점에 있다. 비록 경제적 수준, 외모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가 간호대학생들의 행복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으나 자기긍정과 신념을 통해 행복 인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교육 내용에 인간의 행복에 대한 창조성과 다양한 관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은 창조적 활동 과정을 통해 체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대한 인식유형을 통해 그들의 행복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요인을 파악하고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대한 인식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한 조사연구이며 관련 문헌고찰과 개방형 질문지 그리고 개별 면담을 통해 수집된 항목들을 종합 분석하여 최종 34개의 Q 표본 진술내용을 일 간호대학 4학년 학생 41명에게 분류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C-QUANL Program으로 요인분석하였고, 분류된 행복 인식 유형은 모두 4가지(가족지지-감성형, 자기만족-인식형, 관계지향-행동형, 자기조절-신념형)로 나타났다. 이들 유형에 의해 설명된 전체 변량은 57.6%였다.

제 1유형은 ‘가족지지-감성형’으로 가족의 연대감과 지지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 반면, 남에 대한 상대적 비교로 느끼는

불행감을 동시에 표출하였고 제 2유형은 ‘자기만족-인식형’으로 있는 그대로의 긍정적 자아 인식을 통해 상대적 비교로부터 자유로운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제 3유형은 ‘관계지향-행동형’으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해도 젊은이로서의 미래지향적인 에너지를 표출하며 행복감을 느끼는 유형이었다. 제 4유형은 ‘자기조절-신념형’으로 행복은 주어진 삶을 수용하는 의지적 노력과 자기신념을 통해 통제 가능성을 표명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간호 대학생들의 행복 인식은 개인적 배경과 주관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표출되었으므로 다양한 창조적 활동을 통한 행복감 증대 방안이 요구된다. 창조성은 교육을 통한 행복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간호학생들은 간호의 3요소인 지식, 기술 태도에 끊임없는 창조적 마인드를 배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간호대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안에 행복 개념을 적용할 때에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4가지 유형의 특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은 연구대상자의 분포가 일개 대학에 국한된 점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위해서는 첫째,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 측정도구 개발을 제안한다. 셋째, 간호학 교육과정에 행복에 대한 내용이나 다양한 관점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1-33.
- 김명소, 임지영 (2003).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 구성요인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분석: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83-97.
- 김미란 (2004).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전북지역 대학생들의 인지도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북.
- 김재휘 (2004). 기독교대학생의 신앙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홍규 (1992). 주관성 연구를 위한 Q 방법론의 이해, *간호학 논문집*, 6(1), 1-11.
- 남인숙 (2007). 행복감 계발에 관한 소고. *사회이론, 봄여름*, 217-321.
- 박영례 (2006). 자녀양육에서 어머니 플로우 경험의 탐색.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박영신, 김의철 (2009).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지원: 한국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95-132.
- 박정현, 서은국 (2005). 사람의 내-외적인 모습에 두는 상대적 비중과 행복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4), 19-31.
- 장성숙 (2004). 한국문화에서 상담자의 초점: ‘개인중심’ 또는 ‘역할중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15-27.
- 장은영 (2009). 사회비교와 주관안녕: 문화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157-169.
- 전경숙, 정태연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33-153.
- 정범모 (1997). 인간의 자아실현. 서울: 나남출판사.
- 조계화 (2008). 한국 간호대 학생의 성공적 삶에 관한 태도 유형: Q 방법론적 접근. *대한간호학회지*, 38(1), 111-121.
- 조계화, 김영경 (2010). 간호학생이 소그룹 콜라지 작업을 통해 구성한 행복의 의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61-71.
- 한성열 (1995). 삶의 질과 내재적 동기의 실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2(1), 95-111.
- 황재원, 김계현 (2009). 대학생의 행복추구경향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상담학연구*, 10(1), 57-71.
- Alderfer, C. P. (1972).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human needs in organizational settings*. New York, NY: The Free Press.
- Alicke, M. D., & Largo, E. (1995). The unique role of the self in the false consensus effec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28-47.
- Argyle, M. (2001). *The psychology of happiness*. London; Taylor & Francis.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2, 117-124.
- Chiasson, N., Dube, L., & Blondin, J. (1996). A look into the folk psychology of four cultural group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7, 673-691.
- Costa, P. & McCrae, R. (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4), 668-678.
- Diener, E., Suh, E., Lucas, R., & Smith, 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Flaming, D. (2001). Using phronesis instead of 'research-based practice' as the guiding light for nursing practice. *Nursing Philosophy*, 2, 251-258.
- James, W. (1890).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Henry Holt.
- Jo, K. H., An, G. J., & Sohn, K. C. (2011). Qualitative content

- analysis of suicidal ideation in Korean college students. *Collegian*, 18, 87-92.
- Peterson, C., Park, N. S., & Seligman, M. E. P. (2005).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full life versus the empty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 25-41.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NY: Free Press.
- Watson, J. (1985). *Nursing: Human science and human care. a theory of nursing*. Norwalk, Connecticut: Appleton-Century-Crofts.

Perception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oward Happiness* : A Q-Methodological Approach

Jo, Kae Hwa¹⁾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ype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perception toward happiness. **Method:** The Q-methodology, which provides a method of analyzing the subjectivity of each item, was used. The 34 selected Q-statements from each of 41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a shape of normal distribution using a 9 point scal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a QUANL PC program. **Result:** Four types of perception of happiness in Korea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were identified. Type I is a family support vs. emotion type, Type II is a self satisfaction vs. perception type, Type III is a relation oriented vs. action type, and Type IV is a self regulation vs. belief type. **Conclusion:** It can be concluded that obtaining happiness by pursuing a satisfactory life through creation of value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happines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concept of happiness might be included in nursing curriculum

Key words : Happiness, Nursing, Student, Perception, Methodolog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grants from th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in 2011.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o, Kae Hwa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056-6 Nam-gu, Daemyung 4 Dong 705-718, Korea

Tel: 82-53-650-4825 Fax: 82-53-650-4392 E-mail: jokw@cu.ac.kr